

# 매일 30여명 철야독송...절...참선



신행현장

기도객 붐비는 마산 금강정토사

“여시아문 일시불 개사위국기수 급고독원...”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마산의 금강정토사(주지 자원) 법당에는 호쾌한 울림을 울리는 우바새 우바이들이 금강경 독송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다. 직장을 마치고 혹은 가정에서 법당을 찾은 불자들의 독송소리와 일배 일배에 담긴 참회의 간절한 마음들이 도량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매일 금강경 3독, 108배 혹은 3백배, 1천배를 하는 사람들. 하루 한번의 절도 힌지 않은 현실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정진을 이어가는 사람들. 금강경에 나오는 ‘희유하다’는 말을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이들이 이곳에는 많다. 매일 천 배씩 4년 6개월을 이어온 보살, 3천 배를 100일 동안 완만히 회향한 거사, 반야심경 사경 5천 독을 회향한 보살, 2년째 매일 저녁 금강경 독송과 절을 거르지 않는 직장인이 이르기까지.

10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박종부(49·기계제작회사 대표) 거사와 부인 안태선(45) 보살은 매년 일주일간 단려휴가를 내어 3천배 기도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따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이곳과 더불어 열심히 정진 할 것을 발원하는 기도한다. “일주일을 출가의 마음으로 삼천배를 통해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고 한없는 하심의 마음을 다져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루 하루가 사뭇 감사할 뿐이다.

2년 전 사업 실패로 실의에 젖

어 있던 강병군(54·자영업) 거사도 3천 배 기도로 심의를 받고 의욕을 되찾았다. 88kg이던 몸무게가 10일만에 12kg이 줄어든 만큼 합들었던 나날이었지만 기도를 하다보니 사업실패가 인생실패는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병군 씨는 “기도를 원만히 회향했던 것은 일체 장애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주지 스님과 격려해준 도반들 덕분이었다”고 토로한다.

## 반야심경 사경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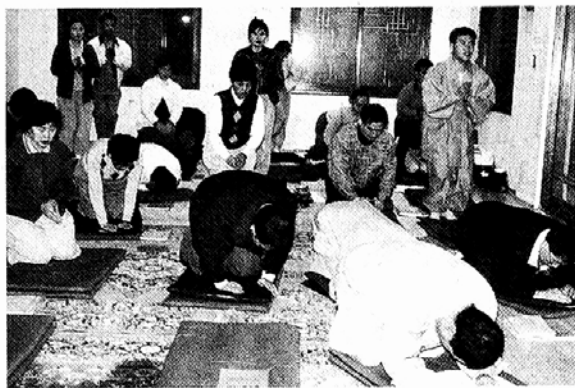
## 4년동안 매일 천배

## 온가족 만배기도

## 5년간 20여명 출가

이들은 한결같이 ‘나’라는 상을 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시작했던 기도는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고 말한다. 가정에 충실한 아내,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직장인, 마음 따뜻한 동료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스스로의 삶이 변화한 것.

“아내가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하면서 너무 밝아지고 편안해져 그것을 지켜보다 절에 오게 되었



◇매일저녁 30여명의 불자들이 자신의 근기에 따라 철야 수행하는 금강정토사.

다”는 하치근(43·공무원) 거사. 그의 부인 천정아(43) 보살은 현재 반야심경 사경 만독을 입재하고 정진중이다. 온 가족이 만배 기도를 한 가족도 있다.

이렇게 이곳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부가 혹은 온 가족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 ‘불제자 가족’들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는 대가공의 공부 뒷바라지를 맡고 있는 정찬숙(46) 보살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 공부”라고 하루종일의 수고로움을 수행으로 돌렸다.

이렇게 수많은 불자들이 찾는 금강정토사는 매일 30명여 가까운 직장인들이 절에서 먹고 자며 수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57마

쌍이 한달이면 바다날 정도의 큰 살림을 하는 주지 자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를 꿈꾸며 여법하게 꾸려왔다. 이곳에서 공부한 이들만도 지난 10년간 3천 여명을 넘었다. 매일 퇴근 후와 출근 전 새벽 금강경 독송, 절, 참선 등으로 수행하던 이들은 하나들 출가해 최근 5년간 20명 남짓이 출가한 기록도 세웠다.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금강정토사 화엄법회, 묘법법회 불자들은 이제 법행제와 자매로 대가족을 이루었다. 일상의 대사를 행하는 것부터 서로의 공부를 닦아 주고 자원 스님의 원력보살인 <금강경>, <지장경>, <부처님 나라(법요집)> 보시에 힘을 보태는 일애까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주제가 있는 법문

# “행복해지는 방법 하나 나눔의 복밭 일구세요”

살펴보세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우주의 움직임.

들어보세요. 여름 내내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저 아득한 소리들.

헤아려 보세요. 앞들을 떨고 내내 마침내 알몸으로 서서 겨울을 지탱해 나갈 저 나무들의 장한 결심을.

그리고 느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고, 자신의 깊은 심연에서 울려 나오는 진음과도 같은 삶의 의미를 느껴 보세요.

## ‘씨앗 뿌려야 열매’ 이 원리가 바로 인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몸을 숙여 3배를 하며 무엇인가를 빌었는지, 사람이든 차가이든 있든지라도 여러분이 부처님께 빈 것은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란 것, 나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과(因果)의 종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잘 파악하면 최고의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흘릴 나뭇잎들을 떨고 내는 저 가을 나뭇잎들을 보고 겨울을 준비하는 우주의 흐름을 응시하려고 한 것도 바로 원인과 결과의 엄연한 관계를 보려는 뜻이었습니다.

무성하던 일을 펼쳐 내는 버림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매끈 겨울을 견디고 봄날의 새 잎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우주의 흐름도 결국 인과의 굴레 속에 있습니



운봉스님 포항 대성사 주지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인과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인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나아가 좋은 인(因)으로 좋은 과(果)를 창조해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란 것도 인과의 법칙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아무리 부처님께 행복을 빌어도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 행복을 빌기에 앞서 먼저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여섯달이 지나지 않아, 왜곡됨이 없이, 싹튼 마당에 걸리지 않고 울퉁한 결실을 맺도록 해달라고 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우주 밖에 어느 한 곳도 복건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복의 밭은 넓고 넓습니다. 그 밭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씨앗을 바로 자비회사(慈悲高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기쁘게 던질 줄 아는 마음으로 복밭을 일구십시오.

복밭 가운데 가장 으뜸의 복밭은 인간이란 밭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의 주변, 바로 내 이웃이 가장 으뜸의 복건입니다. 이 겨울 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갖지 않으나 하는 자기 반성과 남을 위해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어느새 세월은 연말로 치닫고 있는데 경제 환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면, 자신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나누어야 할 이웃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 신행캘린더

11월 22일(수)

■법원사 당사본원 자광스님 초창법회=대구 법원사 당사본원은 오전 11시 30분 문경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 초창법회를 봉행한다. (053)644-8108

■대한불교 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각하사 주지 해당스님을 초청해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18

11월 23일(목)

■군불교진흥회 정기총회=군불교진흥회는 오전 12시 국방부 종교센터 내 군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02)749-5135

■밀양 삼양사 낙성식=밀양 삼양사는 오전 11시 종합불교회관 낙성식 및 관음불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055)354-3267

■운문련 대구지역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운문련 대구지역회는 오후 2시 해림원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1-820-7777 김주본

■등인선원 사찰순례법회=등인선원은 강화 보문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02)577-5800

11월 24일(금)

■전력인불자연합회 순례법회=전력인불자연합회는 오후 1시 장성 백양사에서 연합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02)3456-5784 홍기성

■통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통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모시고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1월 25일(토)

■보국복지부 불교신행회 송년법회=보국복지부 불교신행회는 26일까지 충북 천태산 영국사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2)500-3069 강인준

11월 26일(일)

■통도사 회암산림=통도사는 12월 25일까지 한달간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한다. (055)382-7182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포교사교시=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6개 도시와 미국 LA에서 포교사교시를 실시한다. (02)720-7060

11월 27일(월)

■불교여성개발원 창립법회=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5시 송현클럽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2)722-2101

11월 28일(화)

■천불전 원불 봉안 및 천일기도 입제=대구 보현사는 오후 2시 천불전에서 원불 봉안 및 천일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한다. (053)254-6966

## 생활속의 불교

## 적자생존이란 망발때문

인체를 소우주라고 한다. 오장육부의 돌아가는 모습이 우주의 운행 원리와 비슷하고 장기가 수십억 개의 세포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지구 같은 혹성을 닮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체 내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세포 안에 다시 독립된 생명체(미생물)가 있고 부위 부위마다 세포가 함께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간에 통신하는 기능, 유통 기능, 생산·소비 기능 등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소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인체를 일컬어 중생의 국토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셈이다.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어울려 돌아가는 모습은 지구 속에서, 나라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세상도 인체도 우주도 모두가 공생체이다. 개개인이 따로 따로 사는 게 아니며 세포나 장기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혹성들이 제각기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주고 받는 질서 안에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자의 서원은 이를 세상살이에 대입하면 해탈의 도를 닦아 보살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를 인체에 대입하면 상구보리-내 몸을 끌고 다니는 근본을 아는 것이고, 하화중생-그럼으로써 내 육신 속의 수십조 세포를 몽땅 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체와 세상과 우주가 공생·공용·공체의 섭리 위에 존재할진대 ‘나 하나 잘 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반(反)우주적, 반인간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상 생활 중에 좀처럼 공생·공용·공체의 섭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자각하기는 커녕 그 섭리를 ‘적극적으로 깨뜨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그런 삶을 유능한 삶, 보람있는 삶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수미산같다 한들 틀린 말이라 하겠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생존의 관계이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길만이 제 길이고 바른 길이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말씀이다. ■龍眼

##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능력이자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떤면에서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날부터 氣치로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통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쓰는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떤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로 능력이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 1-제 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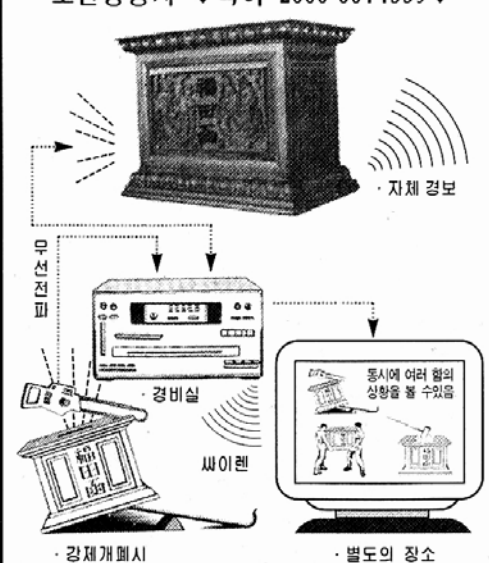
전화 : (02) 720-5682 / 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법당 경비 전용 불전함

도난방지장치 ◆특허 2000-0011559◆



- ◆특수 전자 장치가 내장된 철재 금고에 외부는 통관조각으로 접합했습니다. (리모콘으로만 개폐됨)
- ◆법당내 원형된 지역을 점령하면 원의 요란한 경보와 함께 경비실 및 원하는 당 장소에 무선으로 알림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음선)
- ◆주·야간식 센서가 행사 자동 작동되며, 전원 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개폐기능은 마비되고 경보는 계속됩니다.
- ◆가격은 70만 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서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제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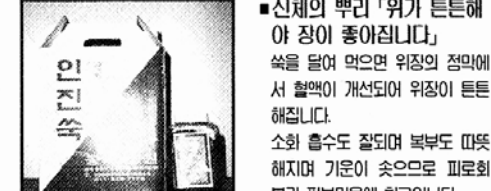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주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나, 매주 10가마나, 큰동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원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 가능)

## 금 용 시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산25-8

TEL: (031) 533-4405 FAX: (031) 532-3444

## 100가지 병(病)을 고치는 의초(醫草) 인진숙



가격 : ₩ 39,500

■비만/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글로콜라피는 열매소스가 있어 체중감소, 살이찌면 연어들이 초래되고 살이찌는 의순환이 반복된다. 숙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액순환, 어혈을 해소 여성분에게 특히 도움이 되어 인삼 녹용에 버금가는 생약으로 [명의법곡] [본초강목] [동의보감] [유대종 박사]의 서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해 집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난 간에 배고고 생하는 분께 좋으며, 옛날에는 항암에는 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영성 교수의 임상 실험으로 숙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있음을 증명)

■신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장이 좋아 집니다. 숙을 많이 먹으면 위장의 점막에서 혈액이 개선되어 위장이 튼튼해 집니다. 소화 흡수도 잘되며 복부도 따뜻해지며 기운이 솟으므로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최고입니다.

■여성/몸을 따뜻하게.. 숙은 만성적인 통증(허리, 어깨, 관절, 류마티스)을 해소, 비만인 C도 많이 감기 예방과 고혈압·저혈압·신경통에 효과 있습니다.

■변비/쾌변(快便)으로 장을 튼튼하게 장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하므로 대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도록 해 집니다. (복은 변을 해소)

우체국 704064-02-029893 예금주 이연택

지장선원/한국건강가족동호인회

053) 982-6778 011) 813-3679